

특집 |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

역풍을 극복하는 법: 오사카의 가능성 | 이노우에 도모카쓰

투고일자: 2016. 11. 13 | 심사완료일자: 2016. 12. 2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일본 제1의 도시인 도쿄와 자주 비교되어왔다. 다만 도쿄 일극집중과 그 이면으로서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가 지적된 지 오래되었고, 현재는 양자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기업의 본사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되짚어보고, 그것이 전시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전후(戰後) 일본 정부의 산업 경제정책의 결과였음을 나타낸다. 그 후 2000년대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가 한층 더 진행되었음을 제시한다. 또한 오사카에 대한 이미지 형성의 배경과 현상(現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오사카가 놓여 있는 문화적 위치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양성된 폐색감이 포퓰리즘 정치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언뜻 폐색감이 충만한 듯 보이는 오사카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커다란 경제규모를 가진 도시권으로, 도쿄라는 내향적 비교축과 일본이라는 국가를 초월하여 발전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덧붙인다. 그와 같은 오사카의 도전은, 국가를 전제로 한 현재의 국제관계마저도 바꾸어나갈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주제어: 도쿄 일극집중, 경제의 지반 침하, 본사이전, 오사카 이미지, 전시체제

지방의 국제화에 나타난 일본의 중앙-지방 간 관계: 지방정부의 정책 리더십 재조명

| 양기호

투고일자: 2016. 11. 19 | 심사완료일자: 2016. 12. 7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중앙-지방 간 긴장과 협력의 관점에 서서, 국제화 정책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의 유산, 제도, 정서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일본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의 독점적인 정책영역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형성해갔다. 국제외교에서 민제외교로, 국제교류에서 국제협력으로, 다문화공생에서 이민정책으로 정책의 개발과 전환을 추진했다. 중앙정부가 후발주자로서 정책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정책을 확산시키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혁신지자체의 민제외교와 국제협력의 사상은 일본 민주당의 우에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로 계승되었으며,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 시책은 일본 정부가 이민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글을 통해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담론과 정책에서 일본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며, 주도적인 리더십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지방의 국제화, 중앙-지방 간 관계, 국제교류협력, 다문화공생, 지방정부의 리더십

‘전적’(戰跡)이라는 기억의 장: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을 중심으로 | 이영진

투고일자: 2016. 11. 20 | 심사완료일자: 2016. 12. 8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에서는 일본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그룹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전적 조사와 답사에 초점을 맞춰, 지난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고찰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특공을 다룬 많은 영화들의 무대가 되면서 현재 가고시마는 ‘특공의 성지’라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매스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순국=희생으로서의 특공의 이미지와 이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은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며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생협의 평화그룹은 이러한 특공의 상품화가 갖는 위험성에 일찍부터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고시마 곳곳에 산재한 특공기지의 흔적(전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공 나아가 지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심화시켜왔다.

가고시마 곳곳에 남아 있는 특공기지의 흔적은 전쟁의 비참함과 동시에 지난 전쟁에서 죽은 자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장소이자, 두 번 다시 전쟁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기억의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전적은 연합군의 공습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전쟁의 기억만을 재생산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평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전적만이 아닌 사라져버린 전적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왜 어떤 것들은 남고 또 어떤 것들은 사라졌는가라는 물음,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장소에 배어 있는 여러 형태의 흔적들까지 읽어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평화그룹의 전적 조사는 남겨진 폐허를 통해 지난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라는 과거형의 회고가 아닌, “우리는 여전히 그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스스로에게 환기시킬 필요성을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주고 있다.

주제어: 전적, 기억의 장, 아시아-태평양전쟁, 전후 일본, 특공대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희경

투고일자: 2016. 11. 21 | 심사완료일자: 2016. 12. 11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에서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중앙과의 마주침을 통해 지역성이 생산 및 구성되는 역동적 측면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해 나가노라는 지역공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되어온 주요 역사적 국면을 고찰한다. 그리하여 지역성은 특정한 방식으로 지역을 재현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구성되는 역사적 산물임을 규명한다. 따라서 지역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맥락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응하여 어떠한 실천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중앙, 지방, 지역성,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공간화, 일본, 나가노

편재(遍在)하는 도쿄 혹은 비(非)도쿄: ‘지방’을 상상하는 어떤 방법 | 심정명

투고일자: 2016. 11. 21 | 심사완료일자: 2016. 12. 9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에서는 특히 인구 절벽과 극점(極点) 사회라는 위기의식을 거치며 근래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공간을, 이러한 문제의식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접속하며 그려내는 일본어 소설

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은 바로 도쿄라는 공간이다. 먼저, 야마우치 마리코의 『여기는 지루해, 데리러 와줘』(ここは退屈迎えにきて)는 전국이 어느 정도 균질적인 소비 공간이 된 이른바 패스트 풍토 시대의 지방도시를 그린다. 공간적 배경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소설의 지방도시에서 도쿄는 부재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기실 이것은 어디에나 편재하는 도쿄라는 준거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고유한 지방색이 탈각되고 어디나 비슷비슷해진 지방도시와는 달리 강한 지역성을 내세우는 소설이 마키메 마나부의 『프린세스 도요토미』(プリンセストヨトミ)다. 종종 도쿄와 대치되는 공간으로 표상되곤 하는 오사카의 생생한 이미지들이 가득한 이 소설은 일본이라는 국가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고유한 역사와 경계를 갖는 ‘오사카국’을 상상해낸다. 복수의 중심은 심화되는 일극 집중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설은 오사카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오사카 안에 존재하는 오사카 바깥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만다. 비슷비슷하게 도쿄화된 지역에서 사실상 이동이라는 제한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바깥을 꿈꾸는가, 도쿄가 아닌 새로운 중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지방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보기 위해서는 장소의 바깥까지 끌어안는 지방 서사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 지방도시, 오사카, 야마우치 마리코, 마키메 마나부

리뷰논문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 박승헌

투고일자: 2016. 12. 5 | 심사완료일자: 2016. 12. 15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에서는 2014년 일본창생회의의 마스다 보고서를 토대로 출판된 『지방소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최근 연구동향을 검토했다. 마스다 보고서는 2040년까지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896지역의 ‘마스다 리스트’를 발표하고, 도쿄로 집중되는 극점사회는 결국 인구의 블랙홀이 되어 인구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과감한 도식을 제시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지방에서의 인구유출, 즉 ‘지방소멸’이 지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 전체의 인구급감을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는 곧 ‘로컬 아베노믹스’라고도 불리는 ‘지방창생’ 전략으로 이어져, 성장과 분배, 안정된 고용을 기반으로 희망출생률 1.8을 달성하고, 2060년에 ‘1억 인구’를 확보한다는 비전이 제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인구인식과 인구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마스다 보고서는 ‘경제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적 국민총동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방도시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은 ‘배제’를 정당화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버려진’ 후쿠시마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 등 전후 일본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마스다 보고서와 이후의 일련의 인구정책들은 ‘재후’(災後)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로컬 아베노믹스의 일련의 정책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차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더없이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 그럼에도 이 정책들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향하

고 있기에, 생활안정을 기반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인구확보와 인구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인구전쟁'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긴장감이 엄습한다.

주제어: 마스다 보고서, 지방소멸, 지방창생, 인구감소, 중앙과 지방, 재후(災後)

연구논단

금기에 대한 반기, 전후 오키나와와 천황의 조우: 메도루마 슌의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을 걸으며」를 중심으로 | 조정민

투고일자: 2016. 11. 22 | 심사완료일자: 2016. 12. 8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은 일종의 표현의 금기인 '천황'에 대해 전후 일본문학과 전후 오키나와문학이 각각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고찰한 것이다. 전후민주주의와 초국가주의가 혼재하는 본토의 양상과 그와는 또 다른 층위에 놓여 있는 오키나와를 대비적으로 살펴 전후 일본과 오키나와 그리고 천황의 표상 문제를 분석하고자 했다.

1960년대 일본에서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좌우 정치권이 크게 대립한다. 그 가운데 우익 청년들이 일으킨 아사누마 사건(淺沼事件, 1960. 10. 12)과 시마나카 사건(嶋中事件, 1961. 2. 1)은 전후민주주의와 초국가주의가 혼재하는 전후 일본의 이중적인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이 두 사건은 천황이 일본인의 몸과 마음을 강력하게 포획하는 장치임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천황(제)이라는 심상적 철책을 뛰어넘고자 했던 두 문학자 후카자와 시치로(深沢七郎)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우익 청년들의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전후일본문학 공간에 더는 천황을 등장시킬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말았다.

이후 전후일본문학에 천황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1986년에 이르러서다. 오키나와의 작가 메도루마 슌(目取眞俊)이 쓴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을 걸으며」는 패전 후 오키나와를 방문한 황태자 부부에게 한 치매 노인이 자신의 대변을 투척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언어와 기억을 반쯤 잃어버린 치매 노인의 비정상적인 신체는 정상적인 규율과 규제가 적용되기 힘든 예외적인 신체에 다름 아니다. 이 예외적 신체가 일으킨 테러는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안에 포섭될 수 없는 오키나와의 예외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 '전후 이후'를 살며, 일장기 게양이나 기미가요 제창과 같은 국가의례를 더욱 강화하여 보수화되던 본토, 그리고 본토 복귀로 '일본'에 빠르게 편입되어가는 오키나와를 목도한 메도루마 슌은 이미 20여 년 전에 패배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기와 다시 마주 보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금기, 반기, 천황 표상, 오키나와, 메도루마 슌,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을 걸으며

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 | 정진성

투고일자: 2016. 12. 1 | 심사완료일자: 2016. 12. 19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수많은 재일동포가 일본에 정착한 지 수세대가 지나도록 민족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민족학교의 존속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민족학교는 해방 후 일본 정부의 억압 속에서 재일동포들의 투쟁으로 건립되었으나,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학교(민단 및 한국과 관련)와 조선학교(총련 경영)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일본학교 내의 민족학교이 설

립되었다. 이후 국제학교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등장했고, 주말한글학교 등의 사회교육도 여러 가지 형태를 띠며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체적으로 재일동포의 일본학교 진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학교, 조선학교 및 민족학급 등은 일본정주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을 모색 중이다. 특히 조선학교는 북일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심각한 억압을 받으며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민족학교들이 모두 실용화, 다양화하는 가운데, 통일을 대비한다는 목표를 다시금 명확히 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지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미 한국적 학생을 경계 없이 받고 있던 조선학교에 한국적 학생이 다수를 접하며 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양상을 대립 속의 융합, 또는 의도하지 않은 구조적 융합의 경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은 민족학교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재일동포 내의 남북한계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융합의 계도를 추적하고자 했다.

주제어: 재일동포, 민족학교, 한국학교, 조선학교, 민족학급, 한국적, 조선적, 통일

「경천애인설」에 나타난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사상적 전환 | 이새봄

투고일자: 2016. 11. 24 | 심사완료일자: 2016. 12. 5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이 글은 일본의 메이지(明治) 초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의 한 사람인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의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한 문제의식의 전환에 대한 고찰이다. 소위 메이지 일본을 대표하는 계몽사상가로 꼽히는 나카무라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한 부분은 영국 유학(1866~1867) 이후의 그가 전개한 본격적인 서양 이해의 논의들이었다. 그러나 나카무라는 영국 유학 이전에 이미 창평형(昌平黉)의 최고 유학자로 확고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글을 남긴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체 사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영국 유학 이전 시기인 창평형에서의 나카무라의 논의에서부터 출발해 메이지 이후로 연결되는 맥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나카무라의 글 중 「경천애인설」(敬天愛人說)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경천애인설」은 1868년에 집필된 글로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쓴 글로 추정된다. 이 글에는 그의 유학적 세계관이 서양을 직접 경험하면서 겪은 사상적 변화가 드러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텍스트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 글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었다. 이 글은 먼저 「경천애인설」에 나타난 나카무라의 사상이 놓여 있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메이지 이전 시기의 그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경천애인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의 사상적 변화를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천애인설」상의 ‘하늘」[天] 개념을 선행연구들의 관점과 같이 기독교적 신(神)으로 봐야 할 것인지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종교 이해의 논리를 분석했다.

주제어: 유학, 경천애인, 나카무라 마사나오, 종교, 도덕

다이쇼기 ‘개인’ 담론의 지속가능한 발전: 염상섭 초기 문학에 나타난 낭만적 아이러니

| 이은지

투고일자: 2016.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6. 12. 8 | 게재확정일자: 2016. 12. 26

창작활동 초기의 염상섭은 자신의 문학론에서 ‘개인’의 가치와 ‘개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때의 ‘개인’은 하세가와 텐케이가 말하는 ‘환멸’과 함께 등장한 존재다. 다만 하세가와가 개인의 이상(理想)을 허위로 치부한 것과 달리, 염상섭은 개인이 자기 비전과 그 실현 과정 속에 세계를 포함시킬 때 ‘자각 있는 붕공’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염상섭이 일

본 유행 시기에 교류한 시라카바와 및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의 관점과 상통한다.

그런데 염상섭의 초기 소설 속 인물들은 '개성'의 발현을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환멸과 냉소를 드러낸다. 그 양상은 구체적으로 글을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작가나,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연애관계에 뛰어들지 못하는 젊은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물들의 상태를 '낭만적 아이러니'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완벽한 진리나 완벽한 사랑에 대한 관념을 추구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관념의 실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들의 고뇌는 결코 일단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염상섭은 이 고뇌 자체를 긍정하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명령'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내적 모순 자체를 하나의 동력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침체되었던 시라카바와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달리, 염상섭이 균형 잡힌 태도로 개성론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염상섭, 낭만적 아이러니, 환멸, 개성, 자연주의, 개인주의, 고뇌, 명령